

# 문화방송 노보

발행일 : 2025. 02. 17

282호

www.mbcunion.or.kr

발행인 이호찬 편집인 박종욱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1~6 FAX 02-782-0135

NATIONAL UNION  
OF MEDI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 제16대 MBC 본부장 전성관 수석부본부장 민성빈 출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16대 본부장 후보에 전성관 조합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수석부본부장 후보로는 부산지부 민성빈 조합원이 나섰다. 두 후보자는 곧장 선거 운동에 돌입해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MBC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고를 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지부장과 부문별 부지부장 선거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 MBC본부 및 서울지부 선거 안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및 서울지부 임원 선거는 오는 3월 11일(화)부터 사흘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됩니다. 서울지부 조합원의 경우 ①본부장·수석부본부장 ②서울지부 지부장 ③서울지부 부문 부지부장 등 총 3번의 투표를 해주시고, 지역지부 조합원의 경우 ①본부장·수석부본부장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6대 집행부 선거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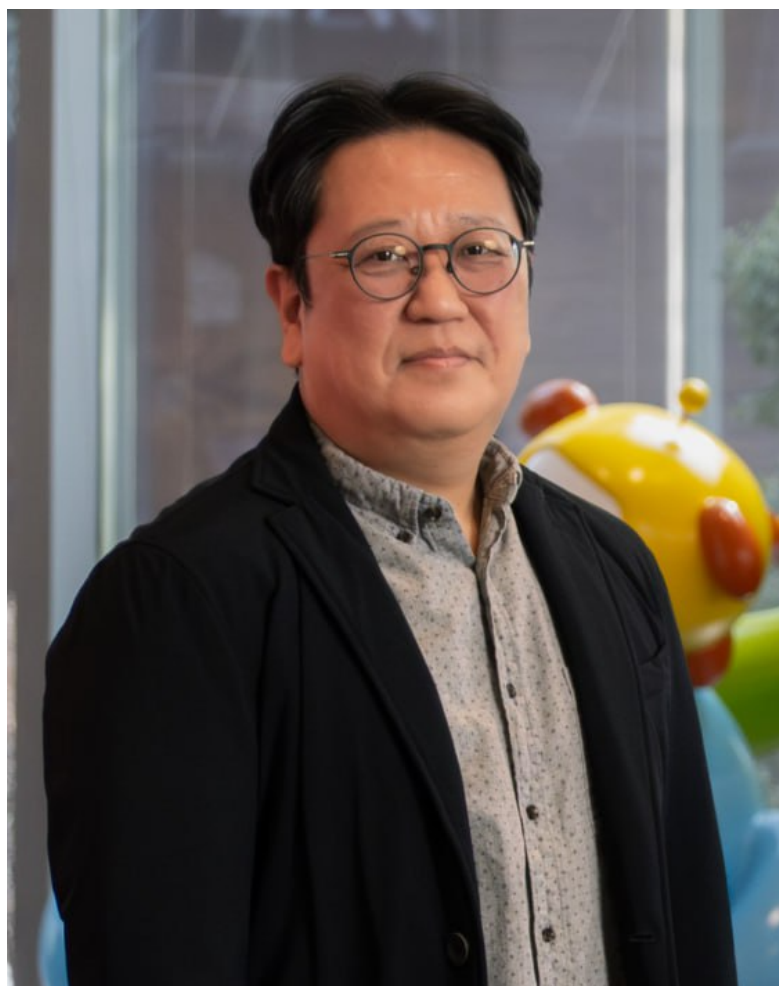
선거 운동 2월 14일(금) ~ 3월 10일(월)

투 표 3월 11일(화) 09시 ~ 13일(목) 18시

투표 방법 모바일 투표 (\*해외 체류 시 이메일 링크)

개표·공고 투표 종료 직후

# 제16대 본부장 · 수석부분부장 출마의 변



## 전 성 관

- 1999년 MBC PD 입사
- 제12대 MBC본부 사무처장
- 시사교양4팀 콘텐츠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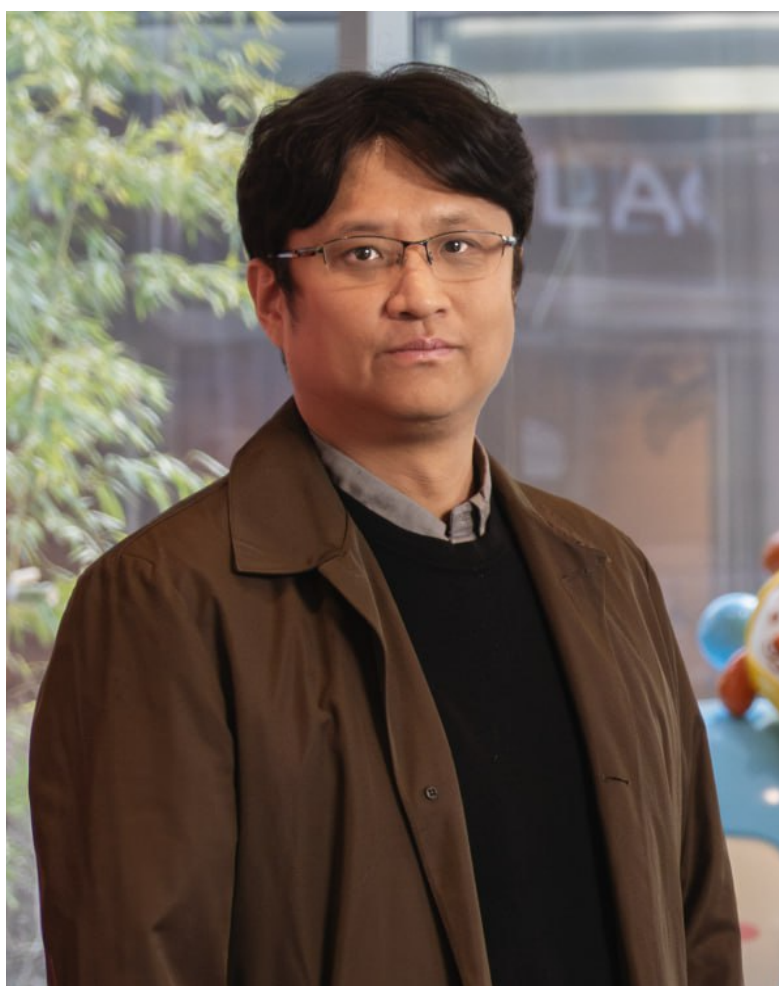
### 약한 등불을 세심하게 찾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 ? “저 사람이?”, “전혀 안 어울리는거 아니야?”  
맞습니다. 노조 위원장에 그닥 안 어울릴 것 같은 제가 MBC 본부 위원장 출마의 변을 내놓습니다. 머리 속은 여전히 하얗고도 복잡한 모순 속을 헤매고 있지만 출발선에 선 제 생각을 조금 밝히자면...
- ’ 16기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쉽)’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한 짜증, 인간관계의 난맥, 밀도 끝도 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자존감, 우리를 흔들어 대는 세력들 등등. 조합원 여러분들을 뺏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심이 필요할 때 편하게 문을 두드리실 수 있는 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 “ ” 때로는 와글와글 시끄럽게, 때로는 속닥속닥 조심스럽게, 그도 아니면 침묵으로라도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조합이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고 싶습니다.
- # 조합원과 조합의 교감이 쌓이고 포개지다 보면 이런 반응도 있지 않을까요?  
#최고의 심터 조합 #조합짱 #마지막 보루 #조합집행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이건 매우 지나친 상상이란 건 인정합니다)
- ! 그래서 16기 집행부가 마칠 즈음 조합원분들 마음에 조합에 대한 ‘!(좋은 느낌 혹은 감탄)을 가지게 되시길 감히 소망해 봅니다.

제 말글 주변이 부족해서 인용문을 마지막으로 제 출마의 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많은 힘들이가 타인에게서 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많은 힘들도 타인에게서 온다. 인간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무리를 잃은 표류자는 압박이며 꺼져 가는 약한 등불이다.”  
(이수은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p 106)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약한 등불을 세심하게 찾는 조합이 되도록 마음 다하겠습니다. 부디 함께 찾아주시길...



## 민 성 빈

- 2003년 부산MBC 기자 입사
- 제14대 부산지부 부지부장
- 제15대 부산지부 지부장

### 강고한 단일노조의 힘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꼭 2년 만에 출마의 변을 다시 씁니다. 부산 지부장에 나서면서 조합원들에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먼저 실천하며, 항상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MBC본부의 수석부분부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지금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조합원들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80명의 부산지부 조합원이 아닌 800명의 지역지부 조합원, 나아가 1900명의 본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앞장서 실천하며, 늘 함께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지역 지부장단 회의에서 한 차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재추천을 받아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석부분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지역 조합원들은 방송의 공영성에 앞서 구조적인 경영 악화 속에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는 경영 악화로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인재가 유출되어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며 다시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 시도에 결연하게 맞서면서도 적잖이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이었습니다. 다시 조합 전임 임무를 맡아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업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큼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수석부분부장으로 강고한 단일노조의 힘으로 공영방송의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근무 여건 속에서 어떤 구성원이라도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정론직필과 창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약속처럼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먼저 실천하며,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6대 서울지부 지부장·부문 부지부장 후보

## 편성제작부문 부지부장



### 김정민

- 2007년 입사
- 시사교양국 시사교양4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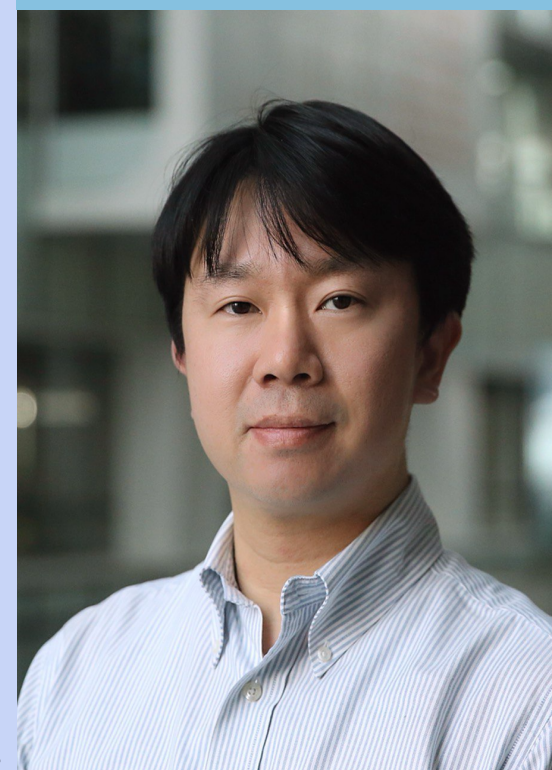
MBC에서 일하는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편성제작 부문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조합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일선 제작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 후임에게 떳떳하게 ‘나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곤

- 2005년 입사
- 제작기술국 제작기술팀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면서도 MBC의 공적 역할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곡점이 많은 근래의 미디어환경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중책을 맡기엔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2년간 기술부문 조합원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술부문 부지부장



## 서울지부 지부장



### 전성관

## 경영부문 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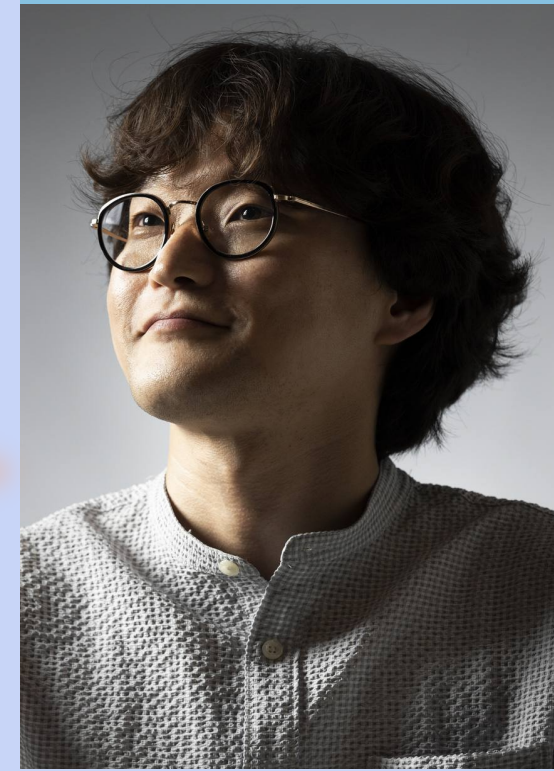


### 성희연

- 2007년 입사
- 경영지원국 재무팀

부지부장의 역할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회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경영부문 조합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공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권익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급여, 복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여, 조합원들의 기여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으로서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상디자인부문 부지부장



### 김선기

- 2007년 입사
- 영상디자인국 영상센터 영상1팀

부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부탁받았을 때 단숨에 승낙한 것은 선배님들 덕분에 MBC 생활을 즐겁게 해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의 체온’이 간절했던 시대에 ‘애증’의 노조가 아닌 ‘애정’의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 다가가서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된 동료들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과 눈을 맞추겠습니다.

## 보도부문 부지부장



### 김태효

- 2005년 입사
- 뉴스영상국 뉴스영상2팀

보이는 것은 많지만 진실을 찾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굵직한 사건들 속에 시청자들의 선택은 MBC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합, 풍랑 속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조합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정방송을 만드는데 앞장서 있는 조합원들과 늘 현장에서 함께 비를 맞는 부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날선 취재 현장에서 지쳐가는 조합원들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명감과 자존감 그리고 일상의 행복이 공존하는 보도부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울 좋게 변화의 흐름만 뒤쫓아 가지 않고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부 15기, 지난 2년의 기억



## "엄혹했던 2년, 하지만 희망을 본 2년"



윤 태 호

제15대 수석부본부장

엄혹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던 때였습니다. 희망과 기대는 언감생심. 어떤 풍파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먼저 느끼며 우리는 2023년 3월 21일, 언론노조 MBC 본부 15기의 닳을 올렸습니다.

첫 풍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범식 후 두 달 만에 경찰이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이닥쳤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으로 규정한 우리는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MBC 탄압 중단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거약에 맞선 MBC 지키기 투쟁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엄습해 왔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치졸하고 졸렬한 MBC 장악 시도가 본격화했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 MBC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감사원과 권익위까지 동원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려 했습니다. 이진숙이라는 희대의 빌런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꿰차더니 친정집인 MBC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법과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무차별 탄압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으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는 어느 노랫말처럼 우리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도래했었지요. 2023년 9월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것입니다. 판결이 나온 그 순간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컷(Cut)으로 선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MBC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법원의 잇단 판결이 더해지면서 “MBC 탄압 중단! MBC 사수!”가 어젠다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MBC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응원하는 싸움으로 국면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MBC 탄압을 매개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 낸 국민적 저항은 결국 지난해 말, 윤석열 탄핵 국회 가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2년을 반추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MBC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사 가운데 하나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법치를 실현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됐다는 것입니다. MBC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MBC에 이런 의미와 가치를 심어준 은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할 거 같습니다. MBC가 온갖 탄압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뿌리에는 투쟁의 아이콘 언론노조 MBC 본부와 투쟁의 DNA를 위기 때마다 발휘해 준 2천 조합원이 있었다는 것을!

“엄혹했던 2년, 하지만 희망을 본 2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